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4월 6일
(월요일)

지역연합신문 7면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공인중개사협 강북구분회 간담회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는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 30분 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 분회장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이루어졌으며,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및 강북구 분회장 15인과 구청 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행정팀장이 함께 참석했다.

송웅섭 강북지회장은 4월부터 실시하는 단속 방법과 점검표를 알려주고 공인중개사들이 미리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분회장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폐업된 중개업체의 간판 강제철거 ▶간판 차폐에 따른 가로수 제거 ▶도시계획 지정에 따른 매매제한 ▶건축사 문제 등이 제기됐다.

박문수 위원장은 “4월부터 시작되는 단속이 ‘적발’ 보다는 ‘예방’ 위주의 점검, 간판 철거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으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간담회 요구사항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